

폭염이 바꾼 일상… 실내 물리고 ‘양산 필수품’

도서관·만화카페 등 북적…더위 탈출 공식 변화 자외선 차단 인식 확산…“양산 없인 외출 부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계곡도 못 가겠어요. 심심해서 집 밖을 나와도 결국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더위 탈출 공식도 달라지고 있다. 한낮 놀이터와 야외 관광지는 한산해진 반면 도서관과 만화카페 등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공간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거리에서는 우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를 든 모습도 이젠 흔한 풍경이 됐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월 들어 연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광양과 광주동부 등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실내로 향하고 있다.

평년최고기온을 크게 웃돌아 38도까지 올랐던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도서관 열람실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시민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책을 읽는 어린이부터 과제를 하는 학생,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자리하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중학생 정예나(양15)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9일 북구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서 놀기에는 너무 더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의 한 만화카페 역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용객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만화를 읽거나 OTT 콘텐츠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보드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친구와 함께 만화카페를 찾은 이모씨

(21)는 “요즘은 만화카페에서 만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다”며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시원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자주 찾게 된다”고 말했다.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우양산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여름 생존 필수품’이 됐다. 실제로 거리에서는 우양산을 쓰고 걷는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가득 메웠고, 휴

대용 선풍기를 손에 든 채 이동하거나 선풍기를 뒤통이에 걸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의 자외선 차단 습관이 생활화되면서 피부과를 찾는 일광화상 환자도 예상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구의 한 피부과 관계자는 “일광화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봄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양산과 모자, 선풍기 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자외선 차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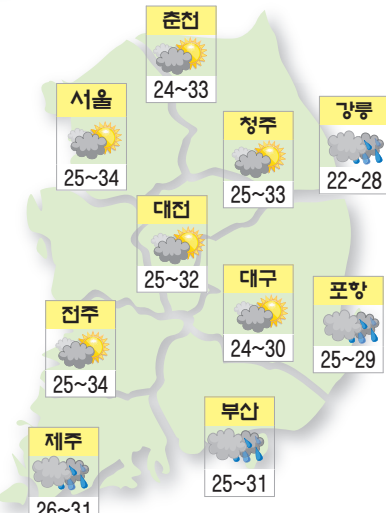
하지만 전문가들은 폭염 시간대 야외활동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은 열사병과 열경련 등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낮 시간대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한편 무더위쉼터 등 냉방시설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

오늘의 날씨

☀️	예보	05:48	🌙	달출	02:21
☁️	예보	19:27	☔️	달림	17:46



광주	☀️	26~34
목포	☀️	26~32
여수	☀️	26~32
순천	☀️	26~32
구례	☀️	25~33
광주	☀️	26~32
임도	☀️	26~32
흑산도	☀️	26~32
고흥	☀️	26~32
진도	☀️	26~33

목포	☀️	11:36 / ---:---
여수	☀️	05:31 / 17:20
목포	☀️	06:58 / 19:50
여수	☀️	01:13 / 13:00

흥기 피해자 구하려는 고교생, 의상자 됐다 ‘장윤기 사건’서 구조 나섰다 중상…국가가 공로 인정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흥기에 찢려 다친 고교생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권철승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비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모군(17)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9급)로 최종 인정됐다.

고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체원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23)가 휘두른 흥기에 찢려 다쳤다.

당시 고군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장윤기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목 부위 등을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고군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심의를 요청했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되면서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임영진 기자 looks@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지난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광주서부경찰서 중앙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를 찾은 경찰 공무원들과 통합건강센터 이용 주민들이 기초건강측정, 구강 검진, 금연상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

업무상과실치사 등 인정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

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92억 투입…무등산 탐방안내소 신축 본궤도

2029년 준공 목표…주민공청회 개최·설계안 공개

92억원이 투입되는 무등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궤도에 올랐다. 전국 도심형 국립공원 가운데 유일하게 탐방안내소가 없는 무등산에 탐방·환경교육·재난대응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7일 청사 1층 전원봉실에서 ‘무등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주민공청회’를 열고 시설 규모와 건축 계획 등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흥기월·노진성 광주시의원, 안태자 동구의원, 노화동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을 비롯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탐방안내소 조성 방향과 건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탐방안내소는 동구 윤림동 문민정사 앞 잔디광장 일원(잠정)에 총사업비 92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1층, 연면적 796~1009㎡, 높이 9m 이하 규모로 계획됐다.

이날 공개된 건축안은 모두 4가지다. 1안은 연면적 985㎡ 규모의 단일 건물 형태로 측면 휴게쉼터와 필로티 공간을

행사마당과 연계해 활용성을 높였다. 2안은 무등산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3개 동(589㎡)으로 전시·교육·행정 기능을 분리하고 옥상정원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3안은 연면적 1009㎡ 규모의 단일 건물을 도로변에 배치해 접근성을 강화했고, 4안은 주상절리 형태의 3개 동(796㎡)과 외부 경사로, 옥상정원을 결합해 경관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했다.

토론에서는 탐방안내소의 기능과 규모, 디자인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인근 지질공원안내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환경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차별화된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여름철 폭염 차량 관리 비상…화재 ‘주의보’

3년간 전남광주 349건·6명 사상…기계·전기적 요인 많아 장시간 햇볕 노출 시 내부 최고 90도…“소화기 비치해야”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엔진 과열과 전기계통 이상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257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4건(사망 2명·부상 8명), 2024년 421건(사망 2명·부상 8명), 2025년 402건(사망 1명·부상 7명)으로 매년 400건 넘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83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2023년 51억

5717만원, 2024년 26억3533만원, 2025년 30억8470만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349건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엔진 과열과 부품 마모 등 기계적 요인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77건, 부주의 60건, 교통사고 30건, 원인 미상 19건 순이었다. 폭염으로 차량 부품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커지면서 화재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24일 오전 10시12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분 만인 오전 10시32분 불을 완전히 껐으며,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에 따른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0일 오후 5시1분에 고창담양고속도로 담양 방향 장성3터널을 지나던 1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대원 44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화재됐던 터널 차로도 이후 재개통했다.

운전자를 비롯한 터널 내 차량 운전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전소돼 7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적재함에 실려 있던 가연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만큼 차량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차량은 실내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오를 수 있으며, 특히 전면 유리 아래 대시보드 주변은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다. 이곳에 보조배터리나 휴대전화 등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일회용 라이터, 부탄가스, 스프레이 등을 비치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

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 장거리 운행 전 냉각수와 엔진오일,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차할 때는 가능한 그늘을 이용하거나 차량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초기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필수적인 안전수칙으로 꼽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여름철 자동차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차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